

무더위 싸~악...땅끝달달야행 오세요

해남군 11일부터 1시간 늦춰 진행 프리마켓·달밤 콘서트·물총놀이 매주 금요일 밤 다채로운 행사

“이번 주말도 덥는데, 금요일 밤 해남으로 가 볼까.”
해남군이 원도심에서 열리고 있는 땅끝달달야행이 11일부터 더위를 피해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로 1시간 늦춰 진행된다.

지난 5월23일부터 매주 금요일 해남 차 없는 거리와 매일시장 일원에서 열리는 땅끝달달야행은 그동안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진행됐다.

땅끝달달야행은 지역특산물과 공예품 등을 판매하는 프리마켓과 각종 체험행사, 문화공연 및 이벤트가 마련돼 있다. 프리마켓과 주변 상가에서 판매하는 다양한 음식들을 사서 거리에 마련된 탁자에서 먹으면서, 무대에서 진행되는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다.

무대에서는 다양한 지역 문화공연 단체가 참여하는 달밤음악 콘서트와 함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달밤가요제가 열린다.

달밤가요제는 이번 주까지 예선을 거쳐 25일 왕중왕전이 펼쳐진다. 왕중왕전 수상자에게는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된다. 또한 관객들의 호응과 참여를 이끌어낸 '나이트 오브 라이트 EDM 공연'이 18일과 8월1일에 펼쳐진다.



해남 땅끝달달야행.

특히 이번으로 해남 황산면의 연호수제맥주 무제한 나눔 행사가 진행되며,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영수증을 지참하면 다양한 상품을 받을 수 있는 판 없는 돌림판, 특산품 경매가 진행된다.

이번 주부터는 물총놀이와 물총선 터트리기, 얼음위 오래참기 등 여름철 어울리는 체험행사와 이벤트가 마련된다.

청소년존에서는 기존 상가를 활용한 동전노래방 열전과 달밤 오락실 대전 이벤트가 운영된다. 이번 달달야행에는 외지에서 달달야행을 찾는 달밤 관광객들도 운영한다.
땅끝달달야행 프리마켓은 오는 14일까지 판매자를 추가로 모집하고 있으며, 해남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진도군 의신면 만길마을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 국비 등 사업비 25억 확보

진도군은 의신면 만길마을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공모한 '2026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진도군은 이번에 선정된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약 25억원을 확보, 노후 주택 개보수와 슬레이트 지붕 개량, 반집 정비, 담장 정비 등의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자문도 병행해 지속 가능한 마을 발전의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진도군은 8년 연속 10개 지구의 취약지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진도군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지역 주민들과 행정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누구나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이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무안군이 진행한 '전남에서 살아보기'에 참여한 1기 참가자들이 연구 캐기 작업을 하고 있다. <무안군 제공>

무안군 '전남에서 살아보기' 1기 5팀 수료

3개월간 농촌 생활 체험

무안군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전남에서 살아보기' 1기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전남에서 살아보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일정 기간 농촌에 체류하며 주민과 교류하고 농촌 생활을 직접 체험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1기 참가자 5팀(6명)은 4월부터 3개월 동안 무안군 정계면 '월선체험휴양마을'에서 생활하며 농작물 재배, 지역 주민과의 교류, 농촌 생활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군은 참가자에게 숙박비, 프로그램비, 연수비, 운영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고 현지 마을과 협력해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참가자들의 안정적 체류를 도왔다.

군은 귀농귀촌포털인 '그린대로'를 통해 2기 참가자 모집을 시작했으며 도시민들이 더 많은 체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이어간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

목포시,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 집중 점검

고위험 가정 16명 아동 대상 진행

목포시가 아동학대 재발 방지와 피해 아동의 조기 발견을 위해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력해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사전 협의를 통해 선정된 고위험 가정 16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반복적 신고 또는 수사 이력이 있는 가정(9명), 사례관리 거부 및 비협조 가정(7명)으로 했다.

지난 5월부터 두 달간 3인 1조(총 15명)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아동학대 위험도 평가척도에 따라 ▲재학대 여부 ▲아동의 신체·정신 건강 ▲보호자의 양육 적절성 ▲주거환경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점검 결과 16명 중 14명의 아동은 안전한

양육 환경이 확인됐다. 다른 지역 기숙학교 및 센터 입소로 대면조사가 어려운 2명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아동보호조치 또는 수사기관과의 연계 대응할 계획이다.

명백한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일부 가정에서는 보호자의 양육 역량 부족이나 아동의 정서적 어려움이 확인됐다. 이에 해당 가정은 관련 기관의 가족 상담 서비스로 연계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 가정에는 복지급여 신청 안내와 민간 후원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학대 피해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경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해 사각지대 없는 아동 보호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완도 전복으로 여름철 원기 회복 하세요

복날 맞아 다양한 판촉 행사

완도군이 복날(초복 20일)을 맞아 다양한 판촉 행사를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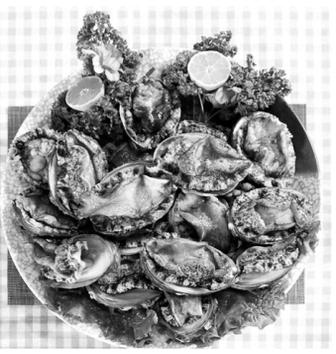
완도군은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삼복 시즌에 소비자들에게 원기 회복 및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전복 먹기를 권장하며 '복날엔 전복, 전복 데이'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군과 한국전복유통협회에서는 전복 수요가 가장 몰리는 초복 기간에 맞춰 11일부터 13일까지 세종시 상신 장터 포털 푸드(본점)에서 할 전복 특가전을 연다. 전복 8~9미(1kg) 3만5000원, 17~18미(1kg)를 2만6000에 판매한다.

전복 구매 고객 전원에게 전복을 2마리씩 증정하고 전복 홍보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중복에는 대형 마트인 이마트와 이랜드 김스클럽에서 전복 판촉 행사를 연다.

완도 특산물 소포몰인 '완도정정마켓'에서는 전복 1만 원 이상 구매 시 무료로 배송해주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완도 전복.

완도군 관계자는 “전복 할인 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은 바다의 산삼 전복을 저렴한 가격에 드실 수 있다”면서 “전복 소비 증대로 어가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합취재본부장 ejhung@

영광군 31일까지 산림소득 보조사업 신청

영광군이 오는 31일까지 '2026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과 '2025년 잔여 사업비' 추가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임원인 소득 향상과 직결된 정정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생산·가공·유통 시설을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임산물 유통 기반 조성, 임산물 상품화 지원, 산양삼 생산 과정 확인제도 등 6개 사업이다.

산림소득 분야 보조사업은 2024년까지는 전년도에 다음 연도 사업을 신청하면 대상자를 확정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 같은 방식은 실제 사업 추진 시까지 상당 기간 대기해야 해서 중도에 포기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예산이 불용 처리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올해부터는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6~7월에 신청분야 11월 말까지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영광군의 대표적인 임산물인 뽕, 감, 사과대추, 두릅, 표고를 포함 79개 품목의 임산물을 재배 중이거나 계획 중인 임업인 또는 임업 후계자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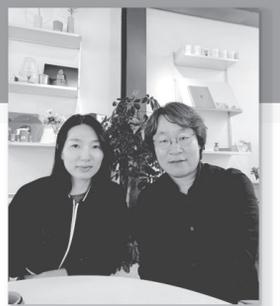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